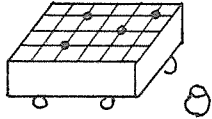


제 1 회 科總會長旗쟁탈 바둑大會 個人戰 特選譜



○윤 영 은 (大韓藥師會)

●최 건 모 (科學技術處)

(제한시간 각 1 시간 · 덤 5 戶半)

〈마지막 決戰〉

개인전은 A조(총호선)와 B조(2급~5급)로 나누어 두었는데 B조만은 단체전이 두어지던 날 동시에 진행 되었으나 A조는 단체전과 겹치기 때문에 날자와 장소를 별도로 정해 추후에 두어졌다.

이판은 단체전이 끝난 5일 후인 4월 18일 科總會館에서 계속되었는데 참가자는 30명으로 모두가 각팀의 주장적인 실력자 들이다.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되던 統計學會의 오무근, 김장한씨와 藥師會의 최규근씨등이 준결승 이전에서 모두 탈락

하고 말았다는 점, 어찌면 이것이 이번 개인전의 이번이라면 이번이라고 하겠다.

최건모씨는 단체전에서 아깝게 패배, 우승을 놓치더니 개인전에서는 파죽의 연승을 거듭하여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윤영은씨도 약 사회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강자. 그동안 선두 주자인 白光明씨와 최규근씨의 그늘에 가려 큰 빛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호들을 연파하고 결승까지 진출한 것을 보니 棋力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제 1 보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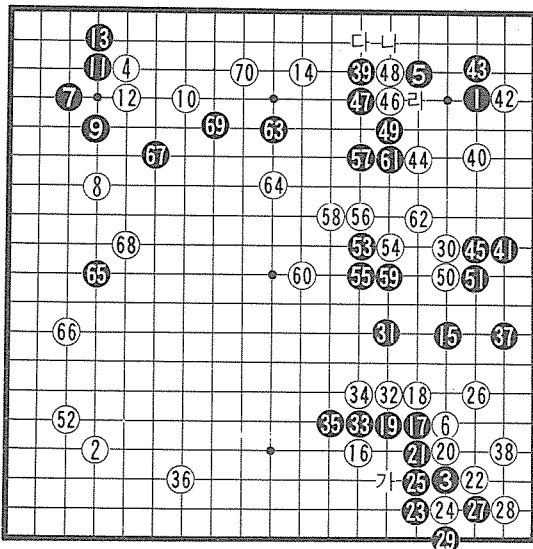
〈中央에서 空中戰〉

黑 1, 3, 5는 한때 크게 유행했던 전형적인 黑의 포석이다. 그런가 하면 白 2, 4의 花点과 外目은 많은 변화를 내포한 것이어서 양쪽의 투지가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한다.

黑 7에 대한 白 8, 10의 응수도 많이 두어지는 수로 이하 白 14까지는 定石이다. 그러나 白의 입장에서는 다시 후수가 되는 것이 불만이다. 따라서 白 8로는 일단 손을 빼고 22의 곳에 붙여 우변에서 주도권을 잡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싶다.

白 16이면 黑 17, 19는 예정된 수준. 이어 黑 21로 꼭 막고 23으로 호구한 것은 두텁게 두어 가려는 뜻으로 보이는데 白 26까지 좋은 형태를 갖추어서는 白도 불만이 없다.

黑 21로는 가에 뛰는 것이 가장 알기 쉬운 정



석으로 되어있다.

黑37은 先手. 白이 38을 생략하면 이 白이 곧 마로 몰릴 위험이 있으므로 손을 뺄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 39로 방향을 바꾼것은 의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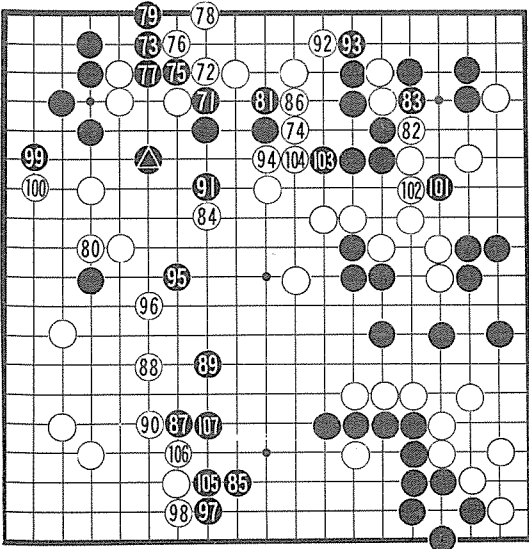
黑39는 다음 70의 침입을 엿보는 째절한 곳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지금은 우변 白한점을 협공하는 것이 더욱 급하다.

白40이 좋은곳. 黑은 이 白을 쉽게 안정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41로 근거를 위협하고 나섰는데 그러고 보니 애당초 黑39로 우변 白을 직접 공격하지 못한 것이 새삼 후회스럽다.

白44는 우변 白한점은 가볍게 보고 중앙에 뜻을 둔것. 그러나 우변에 마늘모로 응수해 두고 제자리에서 근거를 마련해도 나쁘지 않았다.

黑49가 강타였다. 이수로 나에 막는것은 굴복이라고 보고 반발한 것인데 白이 나에 내려서고 黑다 때 라로 나오면 이 변화는 만만치 않다.

白68, 黑69는 氣勢.



제 2 보 (7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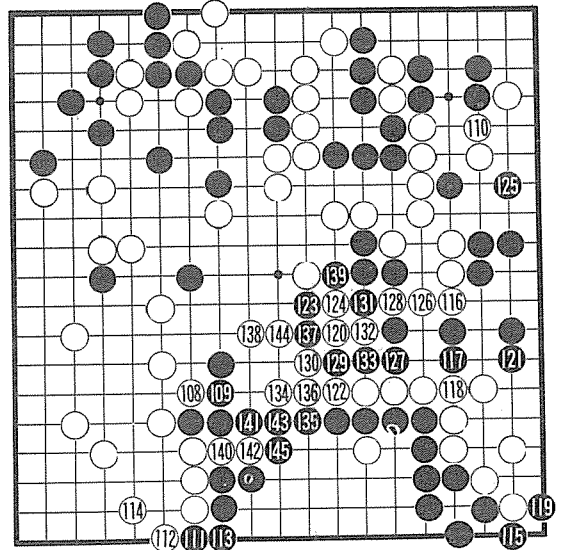
〈팽팽한 局面〉

黑이 △에 뛰어 상변 白을 위협하고 나섰는데 白은 태연히 좌변에 선착, 상변을 잡을때면 잡아보라는 태도로 나오자 黑도 외부를 완전 차단해 국면은 갑자기 긴장감이 감돈다.

어쨌든 이 부근에서 보여준 白의 대담성은 실전에서는 감행키 어려운 것이었다.

黑71, 73은 당연한 공격이다. 그런데 白74때 75에 끊어 석점을 잡는 것으로 만족한 것은 이상했다. 黑은 상변 白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일단 104의 곳에 젓혀 중앙과 연락을 끊어 놓고 양면공격을 노리는 것이 더욱 강력했었다.

白80은 두터운 곳이지만 의문. 이수로 좌변 黑한점이 움직일수는 없게 되었지만 黑81로 급소를 찌르니 상변 白도 살길이 아득해졌기 때문이다.



白84는 중앙을 키우면서 상변 白의 활로를 엿본수. 그런데 여기서 黑이 85로 전향한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수로는 무조건 86에 끊어 상변 白을 잡아야 했으며 그다음 白이 중앙을 넓혀 오더라도 確定地를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黑이 우세를 지킬수 있었다.

黑97은 98에 붙여 白의 응수를 물을 기회였고 黑99도 100까지 진출하여 아무런 위험이 없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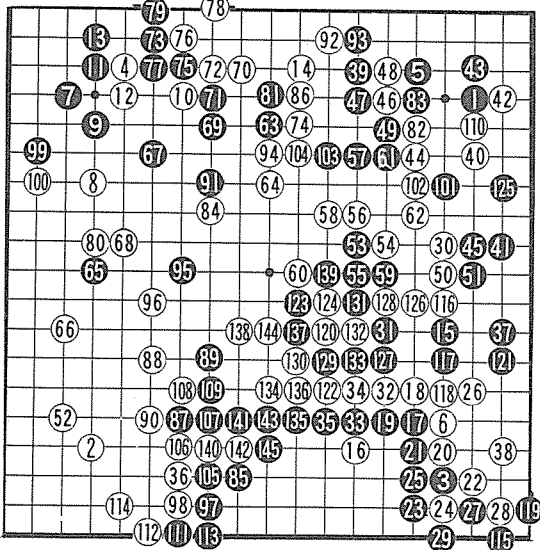
黑105도 수순착오. 당연히 106에 먼저두고 白이 막을때 두어야 했다. 어쨌든 이 부근에 와서는 黑이 계속적인 의문수를 두어 팽팽한 국면이 白쪽으로 기우는 느낌이다.

제 3 보 (108~145)

(黑, 힘겨운 逆轉勝)

중반까지 黑은 선착의 효를 유지, 적은 차이
지만 무사히 수습되면 약간은 남을 것으로 보였
다. 그러나 제 2 보의 마지막 단계에서 黑이 계
속적인 완착을 두는 바람에 끝내기 단계에 접어
든 지금은 아무래도 5戶半이라는 덤이 큰부담
으로 남게 되었다.

白10은 반면 최대의 곳이자 맛도 좋은 곳. 여
기까지 白에게 손이 돌아 와서는 피차 별다른 약



점도 없어 黑이 만회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영
똥한 곳에서 파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黑11, 13은 黑의 권리. 黑15는 은근히 이 白을
노리는 끝내기 인데 결과적으로 白은 이부근에
서 黑에게 말려들어 판을 그르치고 말았다.

白20은 21에 붙여 확실히 살아들 곳. 하지만 20
22로 중앙과 연결한 것도 실리는 손해지만 두터
워서 괜찮았다.

문제는 白26으로 급소를 찌르는 데서 부터 벌
어지기 시작했다. 黑은 어쩔수 없이 27에 잇고
29에 끼우는 승부수를 노리고 있었지만 白30의
침착한 응수로 黑에게 별다른 수단이 없어 보
인다.

그런데 여기서 白에게 결정적인 敗着이 나왔
으니.....

白32로 끊은 것이 패착. 이수로는 35에 짓히고
黑이 32에 이어갈 때 중앙을 단속하기만 해도 승
부는 끝이었다.

그런것을 거꾸로 중앙 白3점이 잡히고 맛도 나
빠져서는 형세가 단번에 역전이다.

총보 (1~145)

(최건모氏 優勝차지)

처음에는 서로가 약간의 의문수도 없지 않았
으나 그런대로 팽팽히 균형을 유지했다.

黑39는 우변 白한 점을 공격할 기회였고 白도
44로는 제자리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편했
다.

黑49는 강타였지만 白두 점이 언제 움직일지 불
안한 상태여서 黑은 57로 보강, 白이 62까지 모
양 좋게 정비해서는 피장 파장의 결과였다.

黑67이 좋은 수였다. 白은 좌변이 잡혀서는
곤난하므로 68로 반격하고 상변을 승부처로 삼
았으니 이것은 큰 모험이었다. 黑이 3 점을 잡
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기에 망정이지 상변 白
은 살길이 분명치가 않았다.

승부는 중반에 결정되었다. 黑이 끝내기를 소
홀히 하는 동안 형세는 거의 白의 편으로 기울
었는데 白132가 지나쳐서 단숨에 역전되고 말
았다.

이로서 개인전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고
제 1 회 과총회장기쟁탈 과학기술인 바둑대회 는
뜻있는 첫 대회의 막을 내렸다. 145수 이하 줄
임. 黑 3戶半勝.

우승 : 최건모 (科學技術處)

준우승 : 윤영은 (大韓藥師會)

3위 : 김형식 (大韓地質學會)

※이번 바둑대회를 契機로 科總碁友會가 부활,
지난 6월28일 사이언스클럽회의실에서 친선바
둑대회를 가졌다. 72년 1월21일 창립된 同碁友
會는 그동안 이렇다할 活動이 없었는데 會長旗
大會는 이런 의미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한편 金東一 科總상임고문이 주관한 이번 친
선대회에서는 金漢台 (우승) 金鏡鎬 (준우승) 李
海星 (3위) 씨등이 입선했다.